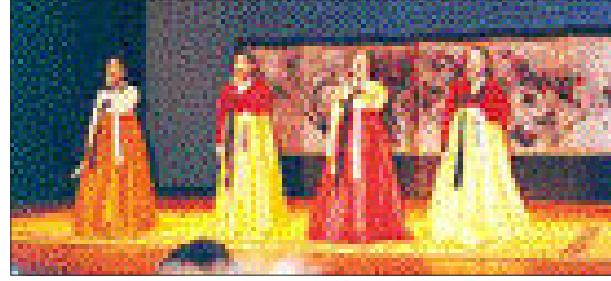


문화

Culture

광주일보

제17419호 2006년 4월 11일 화요일



광주국악협회 신춘대공연

12일 광주문화예관 명인·명창 한자리

남도의 예맥을 잊고 있는 명인·명창들의 한마당 행사가 펼쳐진다.

광주시 국악협회는 12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화예관 소극장에서 '신춘대공연' 행사를 갖는다.

이날 공연에는 판소리, 한국무용, 산조, 가야금 병창, 사물놀이, 남도민요, 단막극 등 7개 부문에 걸쳐 20여명의 명인, 명창들이 재자들과 함께 무대에 오른다.

판소리 부문에서는 송순섭 명인이 고수 박치현씨와 함께 삼국지연의 '적벽대전'을 새롭게 해석한 소리를 들려준다.

안희봉씨와 조은예, 편소라씨 등은 서민의 삶을 진솔하게 표현한 '아리랑 연곡'을 해금으로 연주하고, 이영주, 이정아씨는 '단가 호남가', 판소리 흥부가'를 가야금 병창으로 선보인다.

한국 무용에서는 박은화씨가 남도 특유의 춤사위를 대표하는 한진옹류 '살풀이 춤'을 무대에 올리고, 피리 명인 김광복씨는 성현옹씨와 함께 '피아노와 피리의 즉흥 랑데뷰' 무대를 갖는다.

이밖에 이은하(판소리), 김경희(가야금), 양희정(아쟁), 이명식(장구)씨 등이 남도민요 '꽃피는 새동산 사월기'를 연주하며, 박이식씨는 흥겨운 사물놀이 마당을 갖는다.

/김미온기자 mekim@kwanju.co.kr

어린이 창작인형극 '내 몸은 소중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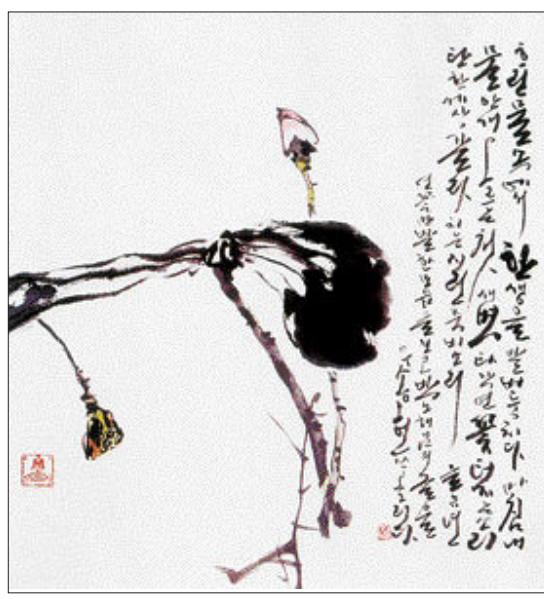
어린이 창작인형극 '내 몸은 소중해' 공연이 12일(황금동 학생회관·오전 10시30분), 14일(송정도서관), 21일(동부교육청) 광주에서 잇따라 열린다.

주부들로 이루어진 인형극 단체 꼬까신의 '내 몸은 소중해'는 난자를 찾아가는 정자들의 여행을 통해 새 생명의 탄생과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고 성폭력의 위험에 노출된 아이들에게 '몸의 소중함'을 알려주는 작품이다.

유치원생인 우람이와 초원이가 주인공으로 등장해 또래 아이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게 구성돼 있다. 아이들에게 익숙한 유우송을 개사한 '내 몸은 소중해'를 함께 부르는 시간도 갖는다.

꼬까신의 정인진 단장은 "사회적으로 어린이 성폭력이 문제화되고 있는데도 많은 아이들이 무방비로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이 안타까워 제작하게 됐다"며 "공연을 통해 아이들이 자신의 몸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곽선정기자 ksj@kwanju.co.kr



김영삼 작 '세월을 보며'

격조 높은 수목의 세계로 초대

광주시립미술관 '남도 문인화의 정신을' 展

23일까지 금남로 분관…중견작가 30명 참가

격조 높은 수목의 세계를 선보이고 있는 남도 문인화가들의 작품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린다.

광주시립미술관 기획전 '남도 문인화의 정신을 찾아서'가 오는 23일까지 광주시립 미술관 금남로 분관에서 개최된다.

올해 창립 16주년을 맞은 광주·전남 문인화

협회는 전시를 위해 110명의 회원 가운데 중견작가 30명을 초대했다. 모두 60여점의 근작을 선보인다. 금봉 박행보, 계산 정찬홍(이상 협회 고문)씨 등 원로들의 작품과 윤전 김병숙, 우승현 김영삼, 소석 구지희, 평사 허희남, 송단 김송자, 우종 백준선씨 등이 출품했다.

'세월을 보며(김영삼)', '울지 않는 새(구지

회)', '무죽도(한상운)', '북란도(조창현)' '그리움(김연희)', '홍매(김영철)' 등 작품은 고졸한 정신세계를 강조하는 문인화의 정수를 보여준다.

또 '삶의 노래(박경남)', '신랑 각시(이양육)', '행복한 미소(이정원)' 등 작품들은 새로운 실힙을 통해 문인화의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문인화단의 혁주소를 엿보게 한다.

김영상 광주·전남문인화협회 이사장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문인화의 영역이나 가치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고 있지만 이번 전시회가 남도문인화 부흥의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ju.co.kr

"영원한 연인 모차르트 사랑해요"

한국 피아니스트의 대모 신수정 50년 세월 뛰어넘는 감동 무대



9일 오후 서울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한국 피아니스트의 대모로 불리우는 신수정 서울대 음대 학장이 한국이 넣은 세계적인 지휘자 정명훈의 지휘에 맞춰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20번을 낭랑하게 그리고 지긋이 연주했다. 50년의 세월을 뛰어넘는 감동이 살아있는 아름다운 연주였다.

1956년 모차르트 탄생 200주년에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으로 데뷔했던 중학생 소녀가, 2006년 모차르트 탄생 250주년에 서울대 음대 학장이 돼 다시 그 음악으로, 그 오케스트라와 함께 연주회를 가졌다. 어떻게 보면 기네스북, 또는 해외토픽에 오를 화제거리가 아닌가 싶다.

1952년 이화경향 콩쿠르에서 '천재소녀'로 떠오

른 신 학장은

1956년 김생려

씨의 지휘로 서

울시향의 전신인

해군정훈음악대

와 모차르트 피

아노협주곡 20번

을 협연, 공식 데

뷔했다. 지금은 '천재소녀'들이 많아 어린 나이에

오케스트라와 협연하는 경우가 많은 데 신 학장은

그 한국 '천재소녀사(史)'의 첫 번째 페이지를 장

식하는 셈이다.

신 학장은 레페토리와 관련, "모차르트 20번은

사실 아이들용이 아니다"며 "나쁜 악보를 구하지

못해 이 곡을 연주했다"고 말했다.

악보가 귀하던 '효랑이 담배 떠던 시절'에 교육자이며 그의 아버지에게 어떤 사람이 악보를 선물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모차르트 20번이었다.

신 학장은 "누런 종이가 부서져 나갈 정도로 낡은 독일 악보였는데 아마 다른 악보가 있었다면 23번을 쳤을 것"이라며 "당시 정말 뭐가 뭔지도 모

르고 쳤다"고 회고했다.

이후 모차르트 20번은 그의 '18번'이 됐다. 세종문화회관 개관 때도 불포장 자발부수 지휘로 일본 NHK 오케스트라와 협연하기도 했다.

신 학장의 20번에 대한 찬미는 거의 모차르트에 대한 '사랑의 고백'으로 들리는 데 모차르트에 대한 그의 사랑은 이미 유별나다. 자신의 콘서트홀 이름도 주제 없이 '모차르트홀'로 지을 정도다.

"모차르트의 인생은 과장되기는 했지만 삶 자체가 세속적이었던 것은 분명해요. 그런데 서른여섯 해 동안 이 땅에 살고 가며 626곡이나 썼다는 게 믿어지지 않아요. 이것은 베헤 쓸라고 해도 어려울 거예요."

반세기 이상을
피아노를 치고 있
는 그에게 피아노
를 치는 이유가 뭐
냐고 물었다.

"힘들어하면서

도 쳐야 하니까 침

니다. 치면 아름다
움에 매료되는 데 동시에 스트레스도 느껴집니다.
이상적인 연주는 머리 속에 있는 데 몸과 마음이

따라주지 않을 때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그는 힘든 작업이 행복하다고 했다.

그런데 신 학장은 요즘 클래식 음악이 점점 쇠퇴하는 것 같아 걱정이다.

"공자 말이던가요, 음악으로 대중을 교화해야 한
다구요. 클래식은 명문 순회의 능력이 있어요. 어떤
정화의 느낌, 카타르시스가 있잖아요. 대중음악에서는
결코 찾을 수 없는 그런 능력입니다. 50년 전을
생각하면 지금은 정말 풍요를 지나, 넘치는 시대입니다.
이럴 때 일 수록 클래식음악이 필요합니다."

/김고우 광연칼럼니스트 papabon@naver.com

플루티스트 백홍승 독주회

16일 광주문화예관 소극장

플루티스트 백홍승(사진) 독주회가 16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화예관 소극장에서 열린다.

백씨는 이번 공

연에서 바하의 '플루트 소나타'를 비롯, 도플리·클라우·정유하의 플루트 곡을 연주할 예정이다.

조선대 사법대학을 졸업하고 폴란드 쇼팽음악원을 졸업한 백씨는 현재 조선대·호신대·광신대 등에 출강하고 있으며 2002년부터 백에플루트 앙상블을 결성해 활동하고 있다.

일본의 플루티스트 우메즈 마사요시가 친족출연하며 피아노 반주는 일본인이다. 하다가 스구미씨가 맡는다.

/김미온기자 mekim@kwanju.co.kr

전주국제영화제 27일 개막

오늘부터 상영작 티켓 예매

'자유·독립·소통'을 주제로 오는 27일 개막되는 제 7회 전주국제영화제의 상영작 티켓 예매가 11일 오전 10시부터 시작된다.

올해는 정치적 이유로 상영이 금지되었던 구 소련 영화를 감상할 수 있는 '특별전 : 저항의 알레고리-소비에트 연방의 금지된 영화들'을 비롯해 관객 참여를 유도하는 다양한 부대행사들이 함께 열린다.

전주국제영화제 홍보팀은 7일부터 시작된 개·폐막 예매에서 개막작인 이란의 '오프사이드(감독 자파르 파나하)'가 예매 시작 1시간 30분만에 완전 매진 됐다고 밝혔다. 폐막작인 '내 청춘에 고함(감독 김영남)'은 11일까지 예매가 가능하다.

/곽선정기자 ksj@kwanju.co.kr

대인동삼일부동산

☎ (02) 223-1140, 210-1101 ~ 622-2532

[광주문화예관]

좋은 자리에 상가 건물을 싸게 사실분

상가 전문소개업체인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광주시내 전 지역 상가 중

점포가 잘 혁성되어 월세

가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이

나오고 앞으로 더욱 좋아

질 비전있는 곳으로 1층 점

포가 4~5칸 정도에 점포

가 여러 칸인 상가를 대표

적인 것만 골라 물건을 많

이 확보하고 있어 일일이

광고하지 못합니다.

사장님께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실 때에는 상가 전문

소개업체인 광주에서 오랜

전통 있는 저희 부동산에

꼭 한번 방문 하시면 책임

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기공인증개사

☎ (02) 234-8216, 휴 011-609-0986

[광주문화예관]

상가부지 및 삼가부지

총장부 대지 50평 80평 100평 26평

근로부 대지 110평 44평 27평

근로부 70평 20평 21평

운집동 중상가부지 대 100평 170평 170평

남동 대지 25평 80평 29평 29평

금동동 아파트밀집 대로점 30평 30평 30평

봉천동 터미널 대